

「다름이 힘이 되는 세상,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안내

- 장애 이해 및 장애 인권 -

안녕하세요? 학부모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가득하길 바랍니다.
점점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학생들이 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했던 장애를 가진 어느 사업가의 인터뷰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릴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에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놀고 있는 나에게 옆집 아이가 말을 걸었습니다.

『같이 놀래? (Want to play?)』

내게도 ‘다른 아이들에게처럼’ 똑같이 말을 걸었던 겁니다.

아마 그 친구는 모를 겁니다. 그 세 단어의 말이 내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이끌어주었는지요.

다양함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편견 없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 모두가 미래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다른 누군가에게 소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느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학교와 더불어 가정에서도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답게, 너답게, 다름답게’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세상
함께할 때 세상은 다름다워집니다.**

1.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놀리지 않고 배려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2. 친구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고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도록 알려 주세요.
3. 무조건적인 도움보다는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칭찬으로 격려해 주세요.
4. 친구가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올바른 행동을 친절히 안내하도록 해 주세요.
5. 나와 다른 친구의 모습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길러 주세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차이존중」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는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장애인 먼저
행복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장애인의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

차이? VS 차별? **차이존중과 차별대우**



기억하세요!

차이존중

원래부터 다를 것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

차별대우

성, 인종, 지역 등을 인위적으로 구별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

글 : 김차명(경기도 시흥정왕초등학교 교사) 그림 : 오토리

장애인먼저
실천운동본부

2023. 4. 21.

전 주 오 송 초 등 학 교 장